

한형칠 씨를 찾아서 -

강원도 정선읍 정선두채

제2의 인생항로를 열어준 콩나물
 2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콩나물과 함께하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수 많은 난관을 극복한 동반자.
 그 고마운 콩나물에 대한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
 능력이 있는 한 콩나물과 인연을 맺일 것이며
 두채업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겠다는 그의 의미는 -

아 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넘겨 주
 오,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

팔자에 없는 아들딸 나달라고
 - 로 시작되는 정선아리랑의 고
 장 강원도 정선,

강원도의 산은 거의 1천m가 넘
 는 거봉들이다. 그 큰산 사이의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기
 차길, 큰산으로 막히면 터널을
 뚫고 강이 가로 놓이면 다리를
 놓아 곧 끊어질듯 하면서도 실갈
 이 이어지는 철로를 따라 강원도
 정선을 찾았다.

날씨가 흐린 탓인지 골짜기는
 더욱 깊어보이고 산중턱까지 알
 게 내려온 안개같은 자욱한 구름
 사이로 이따금 첩첩한 능선의 뾰
 죽한 봉우리들이 들어났다 잠겼
 다 한다.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2
 리, 한형칠씨의 콩나물 재배장은
 고개가 아플 정도로 뒤로 제치고
 치켜다 보아야만 볼 수 있는 높
 은 봉우리들로 둘러싸인 정선읍

내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다.

재배장 뒤로는 제법 큰강이 흐
 르고 있고 이강은 정선읍을 구비
 돌아 멀리 팔당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선두채” 한형철씨가 25년 전 콩나물재배업에 손을 대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고통과 시련을 견디고 오늘을 이룩하고 얻어진 이름,

경북 봉화가 출생지인 그는 30년전 조상네가 물려주신 전답과 정다운 고향땅을 자신의 푸른꿈을 키우기위해 미련없이 버리고, 낯선 강원도 원주땅에서 피혁공장을 차리면서부터 파란만장한 그의 사회생활이 시작되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초년생의 시험장이라 할 수 있는 피혁가공업은 그의 알뜰한 정성과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여만에 쓰라린 패배를 맛보아야 했고 그에게 있어 인생의 첫번째 무대에서의 공연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오직 성실 하나만을 유일한 자본으로 그때까지도 술과 담배를 모르고 지내던 그에게는 자신의 깊은상처를 어루 만져주고 잠시나마 실패의 정신적인 고통을 달래줄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츰 술과 담배를 가깝게 하고, 깊은 인연을 맺게 되기까지 이르른다.

얼마만의 좌절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정신을 차린 그는 제2의 삶의 터전을 마련키 위하여 동분서주한 결과 친지의 도움으로 강원도 사북에 있는 광업소에 취업하면서 부터 콩나물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광업소에서 받는 박봉으로는



도저히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없자 부업으로 콩나물 재배를 시작하였다.

직장에 출근하면서 틈틈히 그리고 남들보다 잠도 덜자고 쉬는 시간도 없이 콩나물 재배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콩나물은 꼭 사람이 붙어있어야 하므로 주로 부인의 손에 의존하여야 했다.

남의 건물을 빌어 근근하게 시설을 하고 하루에 겨우 콩2말 정도로 콩나물을 재배하여 주로 사복이나 주변의 식품가게에 출하하였다.

그러나 경험미숙으로 원료콩의 구입과정에서 묵은콩이 섞인콩을

구입하는 바람에 발아가 잘 되지 않고, 또 재배방법을 잘 몰라 콩나물이 도중에 썩어서 내다 버리는 등의 시련을 거친후에는 재배기술도 터득케되고 차츰 자신도 갖게 되었다.

당시만해도 오일쇼크 이후의 주탄종유(主炭從油)라는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연탄의 수요가 증가 함으로서 광산촌은 날로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외부의 인구가 대량으로 몰려 들고 지역의 모든경기는 활성화 되고 따라서 콩나물의 수요도 급증하므로 부득이 한형철씨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콩

나물 재배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늘어나는 신규수요에 대처하여 재배시설과 물량도 대폭 확장하므로서 차츰 돈도 벌여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신규업자가 생겨나고 그에따라 덩핑경쟁도 하게 되므로 단순하게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한다는 주먹구구식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경영전략을 세워 운영을 하게 되므로서 차츰 사업에 대한 식견을 넓혀 나갈수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나 경기의 흐름도 나름대로 점칠 수가 있었고 긴안목으로의 장기 경영계획도 수립할 수가 있었다.

해서 어느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치고빠져라”는 경영 기본전략에 따라 갑자기 콩나물 재배업을 정선으로 옮겨 시작하게 되었다.

업소의 이전에 따른 정선 현지의 기존업체와 불편했던 관계들이 차츰 안정을 되찾아갈 즈음에 탄광촌의 호황은 차츰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탄광촌에 거주하던 주민들도 멀리 떠나지 못하고, 제천, 영월, 정선등의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하게되자 이때까지 보잘것 없던 시골마을인 정선도 차츰 도시의 모양을 갖추게 되고 한씨의 두채업은 또 활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콩나물과는 전혀 생소한 분야인 가정용 프로판가스에 눈을 돌리게 되고 가스와 관련된 취사용 레인지와 싱크대 계통까지도 사업을 확장한후 호황을 맞게되어 다시 그의 예측을 주효하게 한다.

그래서 콩나물은 주로 집에서 부인의 책임하에 재배되고 있고, 자신은 가스나 싱크대 사업에 전념하고 있지만 그의 머리 속에는 항상 콩나물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수입이 콩나물에서 얻어지는 소득보다 싱크대나 가스 분야에서 훨씬 높은 소득을 보고 있지만, 제2의 인생항로를 개척

해준 고마운 두채업을 손쉽게 버릴 수 없어 앞으로 능력이 있는 한 콩나물과 인연을 맺을것이며 두채업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자신의 현재를 놓게 하여준 콩나물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자신은 이러한 생활속에서 2남3녀의 자녀가 건강하고 또 무사하게 성장하고 있고 자신들 나름대로의 인생항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있어 제일 큰 보람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고, 사업도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어 그에 더 이상의 기대가 없을 것으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의 「콩나물신제품개발론」은 오늘이 있게해준 한형철씨의 사업감각을 가식없이 노출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자 하는 한



로 생각했으나 그는 항상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자 하는 개척정신이 머리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콩나물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영양식품으로 특히 숙취나 감기 등에 좋습니다. 이것은 콩나물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C의 덕으로서 술먹은후에 해장국으로 콩나물국을 끓여 먹으면 속이 개운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것을 필요한 성분만을 추출하여 드링크제나 약품으로 개발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하고 국민 식생활이 고급화 내지는 편의화로 전향되고 있는 요즘 콩나물도 이에 맞춰 소비자가 좀더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조리의 과정을 거친후 통조림으

로 가공하여 보급을 한다면 변천되고 있는 식생활에 부응할 수 있고 콩나물의 새로운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게되어 두채업에도 많은 도움이 됨은물론 국민들도 훌륭한 영양소를 다량 섭취 하므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외래식품에 밀리어 차츰 그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개발하여 되살린다면

형철씨 같은 이가 있는한 결코 우리 두채업의 전망은 어둡지 않고 우리 경제의 밝은 장래를 보는듯한 호뭇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취재에 협조해준 한형철씨에게 감사 를 드린다.